

[로스쿨 합격기]

##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가질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추자



김 경 규

- 충남 대천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0기

### I. 들어가는 말

먼저,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도 많은데 부족한 제가 합격 수기를 쓰게 되어 대단히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디 단 한 분께라도 제 경험과 조언이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합격 수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 II.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기 전에

#### 1. 사법시험 준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 그중에서도 검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할 당시에는 이미 로스쿨이 도입되어 있었지만, 저는 사법시험이 폐지되기 전에 합격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1학년 때부터 사법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운이 좋게도 2014년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하였지만,

결국 2015년 2차 시험에서 불합격하고 말았습니다.

#### 2. 법원행정고등고시 준비

그 후 2016년 마지막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도 불합격한 저는 고민 끝에 로스쿨 입시와 법원행정고등고시를 병행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원래는 법원행정고등고시를 준비했다는 점을 로스쿨 입시에 활용하려던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LEET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고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에는 합격하게 되어 결국 2016년 로스쿨 입시를 포기하고 법원행정고등고시 2차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물론 2차 시험에서 불합격했습니다). 로스쿨 입시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저는 본격적으로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 Ⅲ. 로스쿨 입시 준비

#### 1. 학 점

학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로스쿨 입시에 유리하다는 것은 모두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께서는 학점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더 여유가 되신다면 법학과목 수강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도 법학과목을 여러 개 수강하셨다면 보다 수월하게 자기소개서를 쓰실 수 있고, 추리논증 영역에서도 법학 관련 지문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비법학과 출신에 고시 공부를 하느라 학점이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학과에서 개설되는 법학과목을 많이 수강하였고, 자기소개서에서도 이 점을 부각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 2. LEET

저는 LEET를 준비하면서 강의를 듣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LEET가 내용을 암기하는 시험이 아니라 기술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혼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많은 문제를 풀어 보면서 스스로 그 기술을 익히는 방식으로 LEET를 준비하였습니다.

##### (1) 언어이해

언어이해는 독해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이 독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결국 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들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익숙하셔서 그런지, 종이에 인쇄된 활자를 읽고 풀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도 핸드폰이나 컴퓨터보다는 종이가 된 책이나 신문 등을 통해 글을 읽는 것이 독해력을 기르는 데에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두꺼운 전공서적이거나 어려운 인문학 서적을 펼쳤는데 집중도 안 되고 읽는 것이 고역이라면, 처음에는 자신이 읽고 싶은 소설이나 잡지 등을 통해 먼저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글을 읽다 보면 언어이해를 푸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능력, 즉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2) 추리논증

저는 추리논증 같은 시험 유형을 처음 봐서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추리논증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은 ① 문제 구조를 도식으로 나타내기, ② 오답이 명백한 선지는 빠르게 제거하기, ③ 선지를 참 또는 거짓이라 가정했을 때 모순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기였습니다. 모든 시험이 그렇지만 저는 특히 추리논증의 경우에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시간 배분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추리논증을 준비할 때에는 도식화하고, 선지를 제거하고, 모순을 확인하는 과정의 속도를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한 번 풀었던 문제라도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두세 번 더 다른 방법으로 풀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꼭 저와 같은 방법이 아닐지라도 많은 문제를 풀어 보면서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자신만의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리논증 영역에서 법학 관련 지문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리 법학과목을 몇 개

수강하신다면 시간 절약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3) 논술

논술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논술 점수를 아예 반영하지 않는 로스쿨도 많고, 따로 논술을 준비하거나 논술이 당락에 큰 영향을 줬다는 분은 주위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논술의 경우에는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에 따라 분량만 맞춰 쓰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3. 공인영어점수

저는 대학교에 입학한 후 계속 고시 공부를 해서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워낙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어점수가 높지 않은 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LEET 이후에 부랴부랴 촉박하게 영어점수를 준비하시기 보다는 미리 여유롭게 준비해두시는 것이 LEET와 자기소개서에 효율적으로 집중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4. 원서접수

특히 목표로 하는 로스쿨이 있거나 정량 요소가 매우 뛰어나 어디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원서접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스쿨마다 각 정량요소를 어떻게 반영하고 평가하는지, 전년도 합격자의 정량요소는 어떠한지, 올해 지원자들의 정량요소는 평균적으로 어떠한지,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어떠한지 등의 정보는 결국 스스로 발품을 팔아 얻는 수밖에 없습니다. 로스쿨의 입시요강을 확인하는 방법, 입시설명회에 참가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방법, 입시 사이트에서 모의지원을 해 보는 방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료를 얻는 방법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취합하여 이를 토대로 원서를 전략적으로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학점과 영어점수가 높지 않아 이러한 정량요소를 비교적 적게 반영하는 곳, 전년도 합격자 중 사법시험 유경험자의 비율이 높은 곳,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높은 곳 등을 찾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곳에 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 5.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이 태어나서 처음이었고, 그동안 제 삶에 특별한 경험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써야 하나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쓰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먼저 제 자신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어떤 일들을 겪어 왔고, 그때 나는 무슨 생각을 했으며, 내가 잘하는 것 혹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면을 고치고 싶어하는지 등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외로 제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이 시간은 단순히 자기소개서를 쓸 때 필요한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극적인 일이 없었다면, 굳이 만들어 내서 소위 ‘자소설’을 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 법조인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법조인이 되어서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등을 통해 법조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간절함이나 열망을 자기소개서에 나타내려 노력하였습니다. 로스쿨마다 자기소개서의 양

식이 다르지만, 거의 위에 적은 세 가지 질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경험이 너무나 평범하고 보잘것없게 보일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법조인으로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신다면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나'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제 자신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분들께 따로 첨삭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 작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자기소개서를 한 번 읽어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비단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면접, 수험생활을 넘어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6. 면접

많은 분들이 스터디를 통해 면접을 준비하시겠지만, 혹시라도 면접을 혼자 준비할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면접 스터디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LEET도 혼자 준비했고, 자기소개서도 혼자 준비해서 면접도 예상 질문이나 사회적 이슈 등을 가지고 혼자 준비할 생각이었습니다. 말은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제 스스로 말을 잘한다고 자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권유로 면접 스터디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면접 스터디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면접 스터디는 5명으로 구성되어 일주일에 3회씩 모여 진행하였습니다. 스터디는 ①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교재를 선정하고

② 스터디원이 각자 하나씩 주제를 맡아 발제를 준비한 뒤 ③ 모여서 발제자가 발제를 하면 나머지 스터디원들이 질문하거나 반론하는 식으로 면접보다는 토론과 비슷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후 면접시험을 1~2주 앞두고는 각자 지원한 로스쿨의 면접 기출문제를 가지고 실제 면접과 동일하게 모의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면접 스터디를 통해 말할 때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 예컨대 무의식중에 팔짱을 낀다든지, 한숨을 쉰다든지, 목소리가 작아서 웅얼거린다든지, 자세가 구부정하다든지 등 혼자서 거울을 보고 연습했다더라면 결코 몰랐을 버릇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버릇을 지적받고 매 스터디마다 이를 고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실제 면접에서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압박감을 이겨내는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면접에서는 압박감이 상당합니다. 마치 취조를 받는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 있는 내용을 입 밖으로 논리정연하게 꺼내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미리 스터디를 통해 압박감을 경험해 보고 이에 침착하게 대처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터디 초반에는 생각지 못했던 질문을 받거나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논리가 깨질 때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멍하게 침묵을 이어갈 때도 있었고, 당황해서 말이 빨라지거나 흥분해서 목소리가 커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터디를 계속 진행하면서 생각지 못한 공격을 받았을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수비를 준비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면접에서도 속으론 당황했다 하더라도 겉으로 당황했다는 모

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스터디를 통해 압박감과 당혹감을 많이 경험해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완벽하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 주제에 대해서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었고, 빈틈이 없다고 생각한 논리를 날카롭게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 사고방식이 편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보다 다양하고 설득력 있는 생각들을 접하게 되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생각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 IV. 끝맺는 말

이 수기의 제목인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가질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추자’는 저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사실 작년에 로스쿨 입시를 준비할 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지치고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 나는 법조인이 되어서 도대체 무얼 하고 싶은지,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며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시거나 혹은 다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지치고 힘드실 때는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제 잘난 맛에 살며 지금껏 제 힘으로만 모든 일들을 이루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면서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의 희생과 도움이 늘 함께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도 여러분을 믿고 응원하고 여러분의 성공을 자기의 성공처럼 진심으로 기뻐해 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고마운 마음을 잊지 마시고 항상 소중하게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험생이 마치 벼슬인 것처럼, 수험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힘든 사람은 나뿐인 것처럼 행동하며 고마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는 저와 같은 어리석은 후회가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고시 공부를 비롯해 수험 생활을 오래 보다는 오래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험 생활이 얼마나 외롭고 괴로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자꾸 넘어지고 미끄러지니 점점 늦어지고 뒤처진다는 생각에 여유를 잃고 불안해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토끼와 거북이’라는 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앞서가던 토끼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비록 거북이처럼 시작은 늦었을 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분명 결승선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든지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원하는 바를 꼭 이루시기를, 지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도 수고했다며 여러분을 다독여 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부족한 수기를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처음과 마찬가지로 부디 단 한 분께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수기를 마칩니다.